

# 유전공학/컴퓨터공학 시대의 영화



김성곤  
서울대학교 영문학과 교수

## 1. 쥬라기 공원 : 공룡과 컴퓨터

미국 소설가 마이클 크라이튼의 동명소설을 스티븐 스필버그가 영화로 제작한 『쥬라기 공원(Jurassic Park)』은 2여년 전 멸종된 공룡을 컴퓨터 DNA 합성을 통해 다시 만들어냈다가, 자신들의 피조물인 바로 그 공룡에 의해 파멸하는 인간들의 이야기를 다룬 최첨단 컴퓨터공학 영화이다.

캘리포니아의 팔로 알토(이곳은 현재 스탠포드대학이 있는 곳으로, 1848년 일확천금의 금광을 노리고 사람들이 서부로 몰려들던 '골드러쉬'가 시작된 곳이다)에 소재한 '인터내셔널 제네틱 테크놀로지' 사의 사장 존 해먼드는 코스타리카의 한 섬에 중생대를 복원시켜 관광공원을 만들면 큰 돈

을 벌 수 있으리라는 데 착안하여,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을 시작한다. 그는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컴퓨터 기사와 유전공학자들을 고용한 다음, 호박(琥珀) 화석 속에서 찾아낸 중생대의 모기로부터 공룡의 피를 추출해 DNA를 분석/조합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만들어진 알에서 드디어 새끼 공룡을 부화시키는데 성공한다. 해먼드는 쥬라기 공원을 완성시킨 후, 개장 직전 안전도를 의심하는 변호사를 안심시키기 위해 공룡전문가인 고생물학자 그랜트 박사와 새틀러 박사 그리고 혼돈이론가이자 수학자인 맬컴 박사를 그 섬으로 초대한다.

그러나 중생대로의 경이로운 여행이 될 뻔했던 그들의 방문은 곧 끔찍한 악몽으로 변하고, 낙원처럼 보였던 쥬라기 공원 역시

처절한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한다. 공룡들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통제실의 메인 컴퓨터가 잠시 작동을 중단하자, 순식간에 모든 것이 혼란에 빠져버린 것이다. 그렇게 된 원인은 돈에 눈이 어두운 컴퓨터기사가 공룡의 유전자를 훔쳐 산업스파이에게 넘겨주기 위해 컴퓨터의 보안장치를 작동중지시킨 데에 있었다. 공룡들을 격리시키는 보호벽의 고압전류가 나가자, 공룡들의 살육행위가 시작되고 사람들은 잡아먹히게 된다. 자연을 거스르고 생태계를 뒤바꿔 놓으려 했던 존 해먼드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다.

이 영화의 주제는 우선 상업주의와 결탁한 유전공학이 자연의 질서를 훼손할 때 인류문명은 필연적으로 파멸할 수 밖에 없다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다. 때로 과학자들은 연구비를 타내기 위해서 생태계의 파괴나 환경의 오염도 서슴치 않는 경우가 있다. 특히 기업체의 연구자금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유전공학이 획기적인 신상품을 바라는 상업주의에 굴복하게 되면, 지구의 생태계는 삽시간에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다. 자신의 위대한 발견과 과학의 발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존 해먼드에게 혼돈이론가 맬컴은 이렇게 말한다 - “발견이란 그 과정에서 상처를 남기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발전은 자연에 대한 악탈 행위입니다.”

『쥬라기 공원』의 두번째 주제는 컴퓨터와 공룡, 또는 전자시대와 중생대의 대립과 병치라고 할 수 있다. 과연 이 영화는 공룡들을 철저히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컴퓨터와 그러한 기계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다시 자연 속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공룡들의 대결에 많은 장면을 할애하고 있다. 이 영화에서 공룡들은 일견 무섭고 잔인하게 보인다. 그러나 공룡들은 다만 자연이 시키는

본능대로 행동할 뿐이다. 진정으로 무섭고 사악한 것은, 공룡들을 재생시키거나, 또는 공룡의 유전자를 타회사에 팔아 돈을 벌어 보려는 인간들의 욕심과 이기심이다.

컴퓨터는 단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이성과 논리의 화신이다. 컴퓨터는 유전자를 합성해 공룡을 만들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룡들의 위치와 숫자까지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우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훌륭한 통제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컴퓨터 기사 아들드 네드리는 말한다. 그러나 그랜트 박사는 살아있는 생물이 소프트웨어처럼 번호가 매겨지고 개정되며 보완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컴퓨터는 또 프로그래머의 의도대로 잘 자라지 않는 공룡들을 단순히 버그로 처리해 버린다. 컴퓨터에는 더이상 개체의 존엄성과 생명이 존재하지 못한다. 모든 것은 다만 숫자나 기호로 축소될 뿐이다.

그러나 쥬라기공원의 과학자들은 컴퓨터 화면의 숫자나 기호가 사실은 환상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과연 통제실의 컴퓨터 화면에서 그들이 환상의 숫자를 보고있는 동안 수많은 공룡들은 외부세계로 탈출한다.

과학자들은 또 자신들이 암컷만을 만들었기 때문에 공룡들의 숫자는 일정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이성과 논리 역시, 공룡의 암컷 중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수컷이 생겨 번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힘없이 무너지고 만다. 수학자 맬컴박사의 ‘혼돈이론’이 설득력을 갖는 것이 바로 그 순간이다. 그는 수학이나 과학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뉴턴식의 과학적 믿음에 도전한다.

그렇다면 『쥬라기 공원』은 토머스 쿤이나 피어어벤트 식의 새로운 이론에 입각해,

스스로 절대적 진리임을 주장해온 과학의 절대성에 대해 회의를 던지는 비판적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과학자들이 야말로 그동안 자연 앞에서 겸손할 줄 모르고, 생태계의 파괴에 무신경했으며, 연구비의 유혹에 힘없이 넘어갔었는지도 모른다. 컴퓨터 또한 인공두뇌일 뿐이다. 그런데도 컴퓨터는 오늘날 우리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절대적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전원이 나가거나 잘못 작동되는 순간, 컴퓨터는 무용지물이 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위험한 기계로 변하게 된다.

공룡을 만들어내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파멸을 가져오는 이유 중 하나는, 생명이 사이버 조물주에 의해 탄생되었기 때문이다. 에어리 쉘리의 『프랑켄슈타인』에서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파멸도 역시 그가 조물주와 여성의 고유 영역을 침범했기 때문이다.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행위는 언제나 파멸을 초래한다. 영화 『쥘라기 공원』의 교훈도 바로 거기에 있다.

## 2 『터미네이터 II』 : 인간과 기계에 대한 성찰

마리오 카사가 제작하고 제임스 카메룬이 감독한 『터미네이터 II (Terminator II)』 역시 단순히 최첨단 컴퓨터공학을 이용한 대형 오락영화가 아니고, 인간이 자연의 법칙과 질서를 거스르고 테크놀로지를 도용할 때 필연적으로 도래하게 되는 인류문명의 파멸을 보여주는 무거운 주제의 영화이다.

1997년 세계는 핵전쟁으로 인해 파멸한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30억의 인구가 전멸당하고, 오직 소수의 생존자들만 살아남는다. 이 영화가 시작되는 시점은 서기 2029년이다. 세상은 이제 마일드 베넷 다이슨 박사가 만든 사이버네틱 로봇들의 지배

하에 들어가게 되고, 살아남은 인간들은 반군이 되어 저항하게 된다. 로봇들은 반군 지도자 존 코너를 제거하기 위해 그의 소년 시절인 1994년으로 T-1000이라는 최신행 터미네이터를 파견하고, 그것을 알게된 존 역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구형 터미네이터 T-800을 파견한다. 영화 『터미네이터 II』는 미래에서 1994년으로 보내어진 이 두 터미네이터들의 이야기이다.

이 영화는 우선 인류문명의 파괴와 낙원의 상실에 대한 비판과 경고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문명을 상징하는 자동차의 행렬과 낙원을 상징하는 그네 타는 아이들은 핵폭탄의 열풍에 날려가 빠만 남는다. 인간은 핵폭탄을 만들어 어리석게도 스스로를 자멸시키고 만 것이다. 인류의 어리석음에 대한 그와 같은 비판과 경고는 이 영화의 구성구석마다 무겁게 깔려 있다. 예컨대 그와같은 가공할 비극을 미리 알고 경고하는 존의 어머니 새라 코너는 적절하게도 정신병원에 갇혀 어리석고 고지식한 병원장과 직원들의 감시를 받는다. 이 영화에서는 정상인과 정신병자의 위치가 뒤바뀌어져 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전도된 문명 속에 살고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지구의 파멸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시종일관 계속되는 그녀의 절박한 표정과 필사적인 행동은 바로 이 영화의 가장 절실한 주제 중 하나가 된다. 『터미네이터 II』가 『차이나 신드롬』이나 『그 날 이후』에 못지않는 강력한 반핵영화가 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이 영화의 도입부에는 강렬한 주제음악과 함께 핵폭탄의 열풍이 불어온다. 그리고 그 열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자동차와 인간의 잔해만 남는다. 휴머니티가 타버린 후에 남은 것은 인간이 그 지배력을 상실한 기계뿐이다. 과연 타이틀 백이 끝나가는 화면에

서 불타는 화염 속에서 기계인 인조인간이 등장하고, 화면은 굉음과 함께 위아래로 단힌다. 그것은 곧 인간이 인간성을 상실하고 기계의 지배를 받는 닫힌 세상의 도래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영화는 스스로의 두번째 주제를 제시한다.

이 영화의 두번째 주제는, 인간과 기계(테크놀로지)의 대립이다. 그리고 바로 그와같은 주제를 다루기 위해 이 영화에는 두 부류의 터미네이터가 등장한다. 존을 죽이기 위해 온 터미네이터 T-1000은 인간을 공격하는 비인간적인 기계와 최첨단 테크놀로지를 상징한다. 예컨대 T-1000은 아무런 감정도 없이 사람들을 죽이는 기계이자, 액체 금속으로 만들어진 하이테크 인조인간이다. 그는 물론 여러 인간의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그는 그 누구라도 속일 수 있다. 그는 심지어 존의 어머니 새라로까지 변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본질은 다만 싸늘한 금속일 뿐이다. 그는 악수하는 대신, 금속 칼로 변한 손을 내밀어 방심하고 있는 타자를 찔러 죽인다. 그는 액체금속이기 때문에 무정형이고 파괴되지는 않으며 또 모든 곳에 스며들어 올 수 있다. 그것은 곧 오늘날 우리 생활의 모든 분야에 스며들어오고 있는 최첨단 테크놀로지의 위험성에 대한 강력하고도 상징적인 경고처럼 보인다.

반면, 재래식 인조인간인 터미네이터는 다른 사람으로 변신할 수 없다. 그에게는

정해진 모습이 있다. 그리고 그의 몸 속에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여러 구조물들이 들어 있으며, 살과 피부 역시 인간과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하게 만들어졌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인간과 기계가 이상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특이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흥미있는 것은 자신이 보호하려 온

소년인 존과 같이 지내면서 그가 사물을 배워가고 있다는 점

이다. 그것은 곧 그가 비록 기계이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능력과 측면을 갖고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계로서 그는 T-1000보다 훨씬 더 불완전하다. 그러나 불완전한 만큼 그는 더 인간적이다. 그렇다면 『터미네이

터 II』는 결코 단순한 반기계주의 영화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 영화는 아놀드 슈

와츠제네거가 분장한 인조인간 터미네이터를 통해, 인간과 기계가 조화를 이루며 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해 주고 있다. 과연 인간과 더불어 살면서 터미네이터는 점점 더 인간을 닮아가게 된다. 처음에 존이 가르쳐주는 농담과 유머를 배우기 시작하던 그는, 나중에는 인간이 흘리는 눈물의 의미까지도 깨닫게 되는 감정의 발달을 보여준다. 그리고 드디어 영화의 마지막에 인간들이 아예 다시는 자신과 같은 인조인간을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 끓는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 스스로를 파괴시킨다. 기계가 인간을 위해 자살하는 최초의 영화장면으로 영화사에 기록될 이 인상적인 장면은 감상적인 관객들로 하여금



『쥬라기 공원(Jurassic Park)』은 2억년 전 멸종된 공룡을 컴퓨터 DNA 합성을 통해 다시 만들어냈다가, 자신들의 피조물인 바로 그 공룡에 의해 파멸하는 인간들의 이야기를 다룬 최첨단 컴퓨터공학 영화이다.

『터미네이터 II (Terminator II)』, 역시 단순히 최첨단 컴퓨터공학을 이용한 대형 오락영화가 아니고, 인간이 자연의 법칙과 질서를 거스르고 테크놀로지를 도용할 때 필연적으로 도래하게 되는 인류문명의 파멸을 보여주는 무거운 주제의 영화이다.

눈시울을 적시게 할만큼 감동적이고, 또 이기적인 인간들을 부끄럽게 했다.

T-1000과 터미네이터는 또 '선악의 이분법 해체'라는 이 영화 또하나의 중요한 주제를 드러내 주고 있다. 이 영화에서 한가지 특이한 점은, 『터미네이터』 1편에서 존을 죽이려 파견되었던 사악한 터미네이터의 역할을 맡았던 아놀드 슈와츠네거가 2편에서는 존을 보호하는 선한 터미네이터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그와같은 설정으로 인해, 관객들은 2편이 한참이나 진행될 때까지도 아놀드 슈와츠네거를 악한으로 오인하게 되고, 반대로 경찰관 제복을 입은 T-1000을 선인으로 오해하게 된다. 그러나 그와같은 설정은, 다만 관객들이 갖고 있는 선악의 이분법적 편견을 해체시키기 위한 의도적 혼란일 뿐이다.

과연 악한 터미네이터인 T-1000은 영화가 계속되는 내내 경찰관의 제복을 입고 등장함으로써, 경찰과 정의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바꾸어 놓는다. 경찰복과 경찰차로 인해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은 모터사이클 갱 복장을 한 착한 터미네이터다. 그와같은 설정을 통해 이 영화는 우리의 고정관념이 사실은 얼마나 근거없고 위험한 편견일 수도 있는가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

르쳐 준다. T-1000은 나중에 죽으면서 그동안 자신이 변신했던 여러 사람들의 모습으로 되돌아 간다. 그것은 곧 T-1000이란 것이 어떤 본질이나 정형이 있는 존재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 모두의 혼합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주고 있다.

악을 상징하는 T-1000은 전혀 보이지 않게 자신을 위장할 수도 있고, 그 어떤 장애물도 뚫고 스며들어올 수 있다. 그것은 곧 오늘날 악이 액체금속으로 이루어진 T-1000처럼 도처에 편재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법과 질서의 제복으로, 그리고 때로는 우리와 가장 친한 사람의 모습으로 위장하고 있는 그러한 가공할만한 악의 끈질긴 추적과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악에 대한 종래의 단순한 편견으로부터 벗어나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안목이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최첨단 테크놀로지 역시 자칫 T-1000 처럼 공포와 악몽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한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인간은 스스로의 파멸을 막고, 또 기계와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터미네이터 II』는 우리에게 바로 그와 같은 깨우침을 가져다 주고 있다.